



홍행·돈선거 방지 좋지만 노년 소외·인기영합 투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홍행의 일등공신인 모바일투표가 향후 총선 경선 등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폐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투표는 정치 참여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혁명적 방법이며 조직·동원·돈 선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선거에 도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디지털 디바이드)에 따른 일부 세대의 소외 ▲표심의 왜곡 ▲정당정치외의 붕괴 ▲선거의 인기투표화 등 한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모바일 선거의 두 얼굴

◇노·장년층 소외 등 평등원칙 훼손=그동안 정당의 당원들 연령 분포를 보면 일반 유권자 구성과 달리 50대 이상은 과잉 대표되고, 30대 이하의 과소 대표됐다. 이 같은 세대 불균형은 권향과 왜곡을 낳았다. 하지만, 모바일투표는 20~30대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된 반면, 통신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노장년층 이상을 소외시키게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모바일투표 신청 연령대를 봐도 20대와 30대가 44.4%로 과반수에 육박했다. 40세 이상은 55.6%였다.

실제로 노장년층이 모바일투표를 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아예 모바일투표 신청을 하지 못해 현장투표를 하려 했으나 시간·공간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세대별 소외는 지역의 소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은 전남 등 농어촌지역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선거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모바일 기기의 유무에 따라 투표행위가 제한받아 보편선거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심 왜곡 가능성=표심을 왜곡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의 세대·지역별 집중은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비율과는 동떨어져 연령·지역 대표성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트위터 등 SN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트위터러의 영향이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어야 할 선거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왜곡된 형태의 선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당정치외의 붕괴=정당 지도부 선거인단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과정에서 '당원 중심 정당정치' 원칙을 훼손, 정당정치외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지난 10년간 정당 경선에서 정보

통신 기기와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과연 정당의 체질이 개혁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정치 이벤트가 체질화되고 정당은 선거용 부품으로 왜소해졌으며 당원의 권리와 정당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인기투표화=모바일 경선이 '인기투표' 위주로 흐르면서 정당 정치가 '중우(衆愚정치)'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보다는 당장의 득표에만 몰두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강래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확충해 놓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당의 지도 노선이나 비전을 제시해서 유권자를 설득해내는 과정인데, 우리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허공에 대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관계자는 "인물·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당원의 가치와 국민선거인단의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정하는 등 모바일투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위 잇는 동계 특전캠프

18일 담양군 11공수 특전여단 연병장에서 열린 '특전사 동계 특전캠프'에서 학생 참가자들이 낙하산 송풍훈련을 하고 있다. 특전사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담양캠프에는 광주여대 및 조선대 군사학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207명이 입소해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특전사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 선거운동 벌써 40여건

광주 20건·전남 23건 적발...총선 과열 조짐

4·11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1 총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은 이날 현재까지 총 40건에 이르고 있다. 8개 선거구에서 3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광주의 경례나 당의 지도 노선이나 비전을 제시해서 유권자를 설득해내는 과정인데, 우리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허공에 대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배부 5건, 기타 6건 등이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사례에 대해 3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다. 12건은 경고조치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50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남의 경우 총 23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인쇄물 배부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각각 5건과 7건이었으며, 금품·음식물

제공과 상대후보 비방 등이 각 1건씩이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중 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전남에서는 18일 민주통합당 한 지역위원회의 전직 관계자가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인원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고, 이에 맞서 현직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이 외에도 금품 제공이나 흑색 선전과 관련 4건의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며 "선거 때마다 이 지역의 선거사범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만 3~4세 아동도 무상보육

내년부터...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8일 박재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

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Dabin Watec (주)다빈워텍
이제는 학교에서도 매일매일 살균된 깨끗한 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팀 살균 시스템은 1일 1회 정수기 내부를 자동으로 고온 스팀 살균하여 365일 무균화(일반세균 100마리 이하)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정부조달 4년 연속 1위!!
저희 다빈워텍의 철저한 살균 시스템을 중소기업청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나라에서 보증하게 되었습니다.
물 끓임기 2011년 1위!!
일반 온수제조기로 24℃의 물 80ℓ를 100℃까지 끓일 때 약 7kW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비해 당사 물 끓임기의 경우에는 1.4kW를 넘지 않고 있음 (약 80%의 에너지를 절감)
성능인증제품 (우선구매대상)
건강한 물을 만들기 위한 (주)다빈워텍의 기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증 받으므로써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ww.dabinwatec.com
스팀 살균 정수기 DB-3000
물 끓임기 DHB-1200S
본사 및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34-17 TEL. 031)528-1663(대) FAX. 031)629-5023
광주/전남총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83-24 TEL. 062)674-0507(대) FAX. 062)571-1751
서비스도 다빈워텍이 최고입니다! 고객센터 080-080-1663